

칠레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현황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-09-02

최근 칠레는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태양광, 풍력, 그린수소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동 분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그린수소 및 에너지저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최근 동향은 아래와 같음.

1.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반 현황

○ (2022-2026 에너지 정책 어젠다 발표) 칠레 에너지부는 지난 8.25. 「공정한 에너지 전환」(Fair Energy Transition)을 기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, 점진적인 화석연료 사용 중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표함.

○ (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현황) 칠레는 △2022년 「신재생에너지 매력 국가」(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, RECAI) 세계 14위(2021년 대비 2위 하락) 기록, △금년 상반기 태양광, 풍력 등 51개 신규 프로젝트(108억 미불 규모) 추진, △민간의 향후 5년간 230억 미불 규모의 투자 추진 계획 발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에 대한 제반 관심이 현저히 높아지는 추세임.

2. 그린수소 관련 현황

○ (역내 그린수소 분야 주도국) 칠레는 중남미 지역에서 운영 중인 12개 그린수소 프로젝트 중 3개, 개발 중인 프로젝트 70여 개 중 25개가 칠레 내에서 추진되는 등 역내 그린수소 분야 주도국이며, 칠레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광업, 모빌리티, 중북부 지역 전력 발전 등에 활용 중임.(연간 잠정수요량은 2030년 50만톤, 2050년 320만톤으로 예상)

- 아울러, 2015년부터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는 몇 안되는 역내 국가 중 하나

○ (범정부 그린수소 위원회 신설) 지난 8.9. 칠레 신정부는 「그린수소 국가전략」(2020.11월 공표)의 이행 및 재정비 추진을 위해 에너지부, 경제부, 재무부, 과기부, 공공사업부, 국가재산부, 환경부, 사회개발부 및 생산진흥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그린수소 위원회를 신설함.(주무부처: 생산진흥청)

- 상기 위원회 신설을 위한 회의 시 관계 부처는 △그린수소 프로젝트 관련 지침의 재정비, △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부지 할당 기간, △관련 투자 촉진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

○ (칠-독 그린수소 수출 MOU 체결) 지난 8.25. 칠레는 독일 최대 항구도시인 함부르크市와 그린수소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, 향후 △독일 내 그린수소 수요 충족을 위한 칠레산 그린수소 수출(우선순위), △여타 유럽지역에 대한 그린수소 수출시 주요 항구로서 함부르크의 협력에 관해 합의함.

3. 에너지 저장(ESS) 관련 현황

○ (에너지 저장 관련 정책 추진 현황)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추세에 따라 칠레는 2016년부터 에너지 저장 관련 법규가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, 금년 3월 상원은 △전력 시장에서의 에너지 저장 촉진, △에너지 저장 관련 인프라 구축, △e-Mobility 구매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함.

○ (에너지 저장 기술의 필요성) 통계에 따르면 금년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2,206GWh가 대량 손실되었으며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손실된 총량(1,647GWh)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인 바, 에너지 저장 및 송전망 미비가 주원인으로 지적됨.

- 이러한 에너지 대량 손실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칠레 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
